

2014. 3. 17(월)

태산 너머 하늘 이야기 (1~3월)

주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출국일자와 훈련일정에 대한 확정을 기다리면서 소식을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파송예배가 G시와 B시에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빠는 2월 해외 T시와 C시를 다녀왔습니다. 귀한 교회들과 동역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선교와 D족 나눔으로 인해 감사와 눈물,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교회들과 가정들에 더욱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 드립니다.

1. '무서움' 과 '두려움'

큰 광풍(a fierce storm)으로 죽게 된 제자들에게 임한 '무서움' (막4:40)! 그 무서움은 바다의 바람과 파도로 인한 무서움,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의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2014년 오늘을 사는 하늘이네 가족도 출국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처음 '무서움' 은 온데 간데 없고,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 에 휩싸인 것입니다 (41절). 하늘이네 가족 모두가 우리 주님을 앞으로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서움' 이 아닌 거룩한 '두려움' 으로 앞으로 붙어 닥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2. 드디어 출국!

4월 중순에 출국합니다. 해외에서 2달간의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지에 도착해 정착과 언어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준비와 여러 서류들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인 하늘이가 경험하게 될 많은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떠날 때에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 정든 한국의 문화들과의 헤어짐이 정서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 겪는 어려움들을 하늘이와 가족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쉼! 쉼! 쉼!

현지에서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서울 C교회의 H목사님의 후원과 격려로 쉼훈련을 받았습니다. 쉼은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명령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신6:4-9). 쉼훈련을 통해 가정에서 하늘이를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들과 함께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지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D족 마을마다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4. 보안!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현지 선생님들이 부득이하게(?) 현지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 정부는 외국인들의 입국 이후 모든 개별적인 움직임을 감시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전화, 이메일, 기타 모든 이동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에게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이네 가정은 현재 사용중인 이메일 계정을 4월 중순에 중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메신저(한** 집사님)를 통해서 이메일과 편지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들을 부탁 드리면서,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해와 함께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저희들의 본명과 선교명, 사진, 선교국가, 선교대상(전체 이름)을 홈페이지나 카톡, 기타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용된 내용이 있으시면 꼭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주보에 기록하실 때에는 선교명과 함께 'D' 쪽으로 해주시고, 홈페이지에는 기록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실 때에는 기독교적인 용어들은 모두 금해주시고, '채사장'과 '사모님'으로 불러주세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모두 '비즈니스' (사업)로 표현될 것입니다.
- 3) 소식에는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사용되는 지명과 이름들 역시 보안상 약자로 사용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저희들에 대한 안부와 후원문의는 서울 사무실과 한**집사님을 통해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5) 태산.너머.하늘 소식은 2달에 한 번씩, 홀수 달에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소리 높여 주세요

- 1) 출국 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준비들이 꼼꼼히 잘 준비되게 하시고, 2달간의 해외 훈련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 2) 하늘이의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한국에서 사랑했던 것들과의 헤어짐이 정서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과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생각과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소서. 특별히 도움의 손길들과 예비된 친구들을 허락하소서.
- 3)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되, 오직 하나님 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 4)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시되 믿음 안에 더욱 굳건히 서있게 하소서.
- 5) 후원회 임원들과 기도하는 교회들과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이네 가족도 모든 동역자들과 기도를 통해 서로 교통하게 하소서.
- 6)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필요한 준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6. 후원 안내 (서울 사무실 02-455-0271; 메신저 한효순 집사 holysny@naver.com)

*** 후원안내는 보안 상의 이유로 다음 소식부터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서울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1)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입금할 경우 아래의 OMF 본부계좌를 이용해주세요.
국민은행 290-01-0007-062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오엠에프)
- 2) 인터넷으로 이체, 은행방문 입금할 경우 아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주세요. (자동이체를 안 하실 경우)
국민은행 049790-29-000326 (예금주: 장태산/강너머)
***첫 입금 시 사무실 재정담당 간사님에게 꼭 전화하신 후에 입금해주세요. (☎ 02-455-0271)**
- 3) 캐나다와 미국에서 후원하실 분들은 cheque로 OMF International-Canada (수취인)으로 보내주시고, Memo란에 이름을 Chae-Park, ChoonGill & HyunSuk으로 기록해주세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OMF International Canada, 21-5155 Spectrum Way, Mississauga, ON, CANADA, L4W 5A1
☎ 한국 연락처 장태산 (010-9139-3917), 강너머 (010-9049-3917)